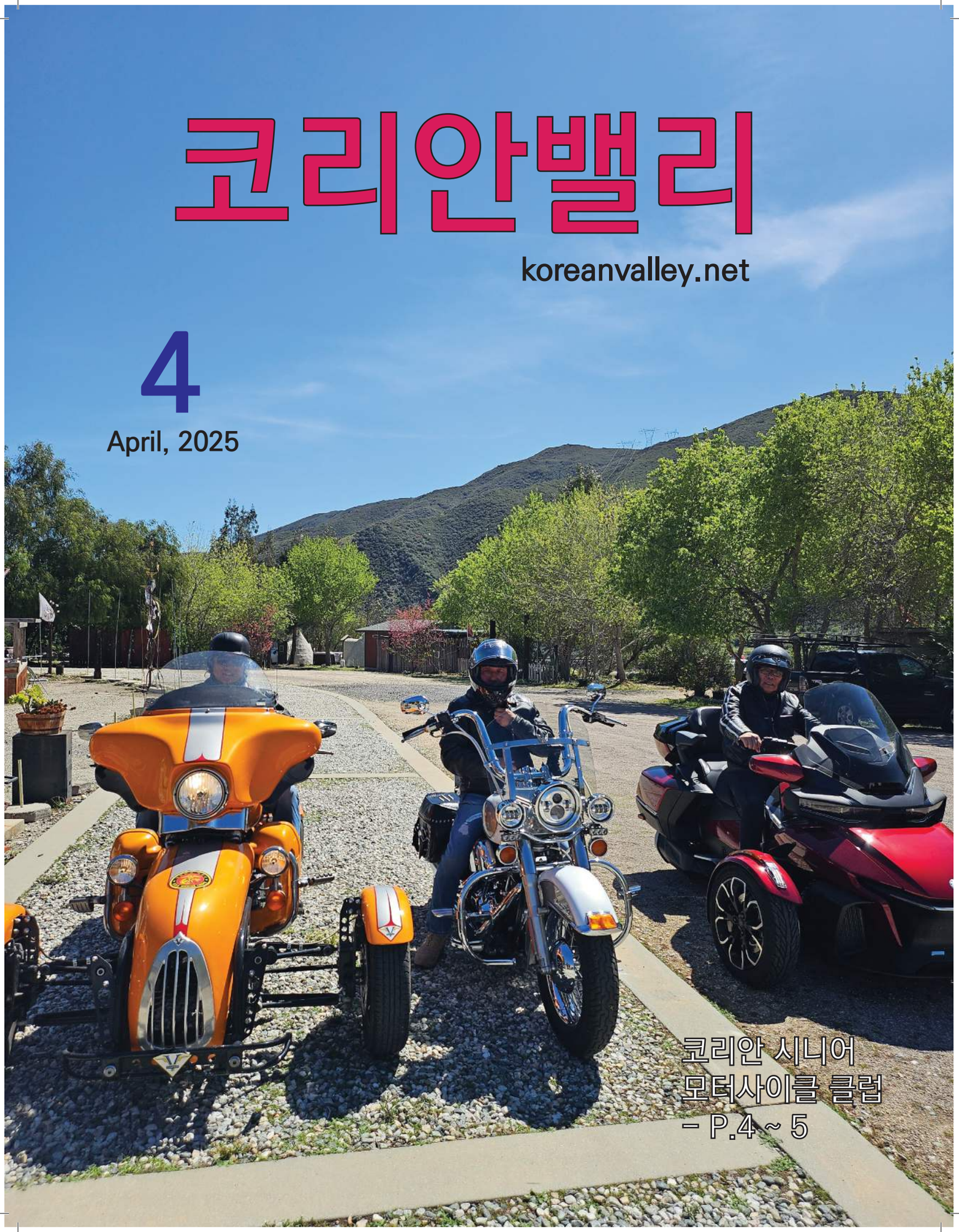
코리안밸리

koreanvalley.net

4

April,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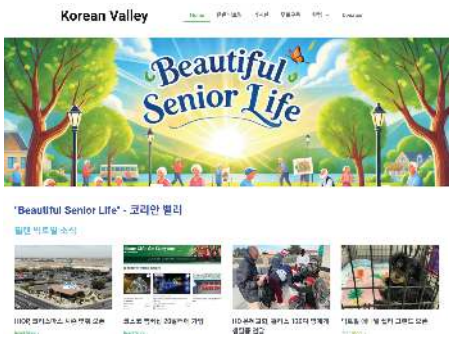


코리안 시니어
모터사이클 클럽
- P.4 ~ 5

Korean Valley

April. 2025

필랜 빅토빌 뉴스 매거진





(웹사이트 월 평균 방문자 수 1,250명)

koreanvalley.net
info@koreanvalley.net
광고문의: (213)503-3491

새로운 배움, 새로운 즐거움!

시니어 컴퓨터 교실



컴퓨터 기초부터 AI 활용까지...
시니어 학습공동체로 운영됩니다

*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초보 맞춤 강의!
* 디지털 문해력을 키웁니다.
*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유용한 강의!
- 4월도 등록 가능

□ 강의 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
□ 장소: 9522 Branding Iron Rd. Phelan
□ 수강료: 월 $50



카이저 병원 들어 온다 100에이커 부지 확보

하이데저트에 카이저 병원(Kaiser Permanente)이 들어온다.
카이저 퍼머넌트는 지난해 11월 말, 헤스페리아 지역에 750만달러를 들여 새로운 부지를 매입했다.
위치는 에스콘디도 애비뉴(Escondido Ave.)와 술타나 스트릿(Sultana St.) 코너 땅이다(지도 참조).
건설 관계자는 70~100에이커의 넓이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부지는 월마트 뒷편, 2021년에 문을 연 카이저 병원사무실 빌딩 바로 옆이다.
카이저 병원이 오픈되면 하이데저트 지역의 한인들도 의료 편의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최대 비영리 의료 기관인 카이저 퍼머넌트는 1945년 설립 이래 혁신적인 통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며 수천만 명의 건강을 책임져왔다.
카이저는 건강 보험과 의료 서비스를 결합한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모델을 기반으로, 가입자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체 병원과 전문 의료진을 운영하며, 진료부터 검사, 처방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특히, 예방 의학을 중시해 정기 검진과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이미지=vvng.com]



실버우드 신규주택 5일, 6일 그랜드 오프닝

실버우드 신규주택이 드디어 일반에 공개된다.
프로젝트가 시작된지 무려 13년만의 결실이다.
헤스페리아 시 및 건축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리본 커팅을 하고 4월 5일과 6일에 그랜드 오픈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18채의 모델홈이 공개됐다.
주택 가격은 40만달러부터 시작하며, 5월이나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주택 1만 5000채가 들어서는 실버우드 프로젝트는 1단계 작업이 란체로 로드 남쪽에서 시작된다. 1단계에서는 2,000채의 주택과 콘도를 짓는다.
실버우드 프로젝트에는 총 9,366에이커 부지에 15,633채의 주택, 70만스퀘어피트의 커머셜 공간, 4500에이커의 오픈 공간에 387에이커의 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사진 왼쪽부터 마리오, 아파치, 김성일씨

“안 타본 사람은 그 기분 몰라”

액티브 시니어들의 ‘모터사이클 클럽’ 발족식

지난 달 19일 예술사랑에서 코리안 시니어 모터사이클 클럽(KSMC) 발족식이 있었다. 연두빛 미루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리는 봄 날 오후, 액티브 시니어 3명 – 아파치(48년생), 마리오(53년생), 김성일(58년생) – 이 의기투합 했다. 모토는 “Enjoy Your Life.”

라이딩 경력은?

아파치: 햇수로 따지면 60년을 넘게 탔다. 젊었을 때는 할리를 타다가 지금은 안전하게 CanAm의 트라이크(Trike: 세바퀴 오토바이)를 탄다.
마리오: 한국에서 20대부터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다. 아직도 두바퀴 할리를 고집하고 있다.
김성일: 오토바이 경력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제일 막내다. 이전에는 두바퀴 할리를 타다가 65세가 지나서는 할리 트라이크로 바꿨다.

시니어 모터사이클 클럽을 결성한 취지는?

아파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미국은 도로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안타본 사람은 그 기분을 모른다. 타 본 사람만이 느끼는 매력이 있다. 그룹으로 타면 안전하게 모터사이클을 즐길 수 있다.
마리오: 두~둥 두~둥하는 소리를 들으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감정이 살아난다. 함께 라이딩을 했을때 감동이 복받쳐 눈물이 난 적도 있다. 여럿이 하면 감동도 배가된다.
김성일: 예술사랑을 본거지로 해서 음악도 즐기고 커피도 마시고, 함께 라이딩을 엔조이할 계획이다. 주변에 좋은 라이딩 코스가 많다.





오토바이를 타면 좋은 점은?

마리오: 나이들어서 오토바이 타는 일은 쉬운일은 아니다. 반사신경 활성화를 위해 꺼꾸리도 하고 하체운동을 위해서 아침에 1~2마일을 걷는다. 늘 준비운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덕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아파치: 젊게 살 수 있다. 나이를 먹으면서 라이딩 횟수는 줄었지만 내가 늙었다는 느낌이 없다. 주변에서 익사이팅하게 봐주어서 인지 늘 젊다고 생각하게 된다.
김성일: 오토바이와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사고가 난다해도 사랑은 멈출 수 없다.

트라이크를 타는 이유는 안전때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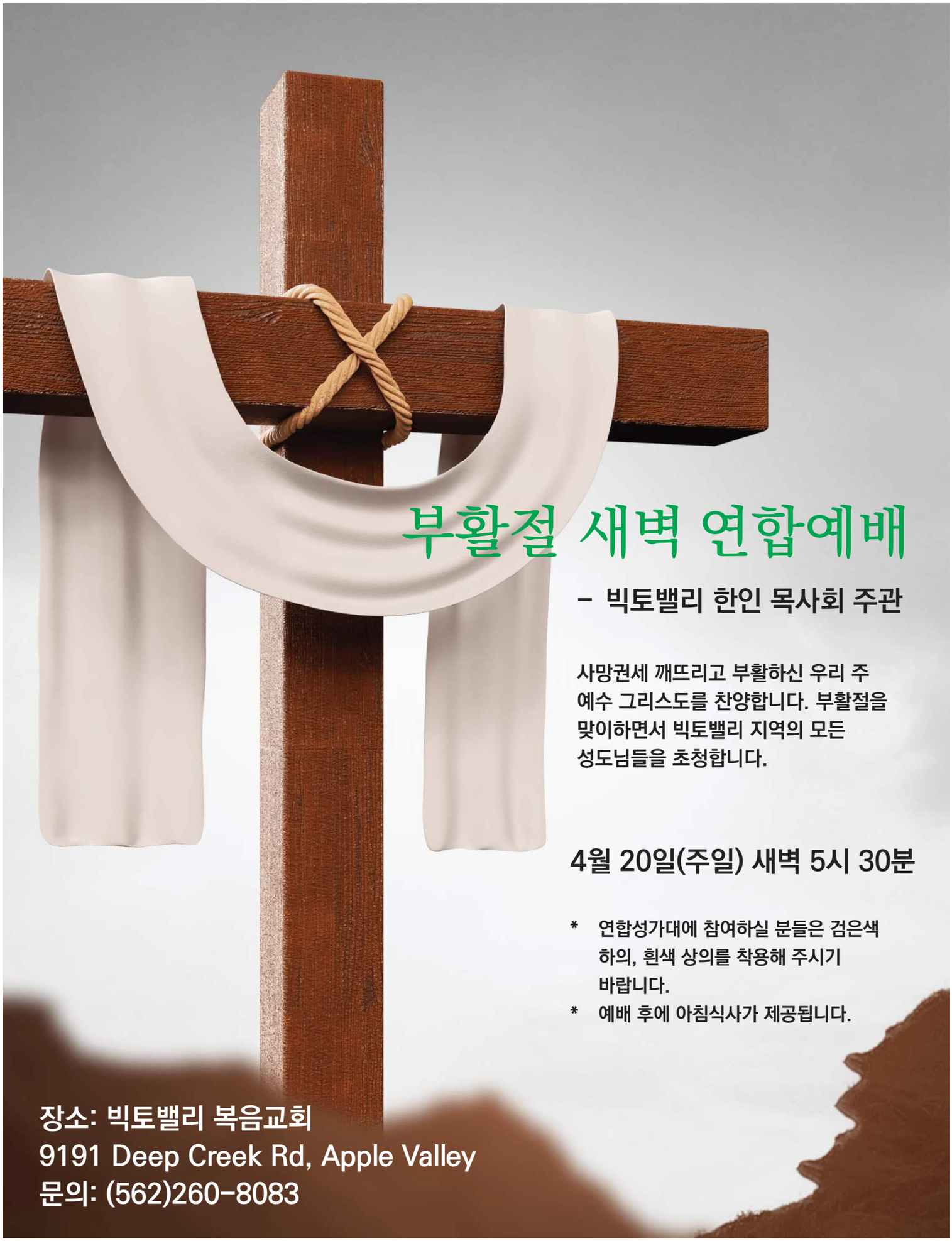
김성일: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균형감각이 떨어진다. 트라이크는 자동차처럼 안전하다. 나이들어서는 넘어지면 안되기 때문이다.

회원들이 모두 닉네임을 사용하는데.

아파치: 라이딩 그룹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다. 내 딸이 미주 한인 최초 여성 파일럿이라서 헬기 '아파치'의 이름을 따서 닉네임이 그렇게 붙었다. 딸이 지금 현역 대령이다.
마리오: 한국에서 군 제대 후 부모따라서 남미로 이주, 남미에서 살았다. 그 때 닌텐도의 수퍼 마리오 게임을 잘하고 캐릭터도 비슷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
김성일: 회원들은 '도깨비', '절벽' 등 이름보다 닉네임을 부른다. 본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는 아직 닉네임이 없다.

멤버가 되려면?

김성일: 매월 한번씩 모여서 즐길 계획이다. 특별한 지역구분은 없다. 모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 샌버나디노의 예술사랑에서 모임을 시작하게 됐다. 젊었을 때 오토바이를 타보겠다는 꿈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다. 처음 라이딩을 시작하는 사람은 트라이크를 권한다.
문의: (909)576-5773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 빅토밸리 한인 목사회 주관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빅토밸리 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4월 20일(주일) 새벽 5시 30분

* 연합성가대에 참여하실 분들은 검은색 하의, 흰색 상의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후에 아침식사가 제공됩니다.

장소: 빅토밸리 복음교회
9191 Deep Creek Rd, Apple Valley
문의: (562)260-8083

빅토밸리 감사한인교회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Victorvalley Thanksgiving Church

*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10시
*교육부 예배: 오전 10시
*금요 성령치유 기도회: 오후 7시
*새벽기도회: 화~목 6시
*감사한국학교: 주일 오후 12:30

원로목사: 박상훈 담임목사: 최호신



Thanksgiving Youth English Ministry
감사한인 청소년 영어부

JOIN US EVERY SUNDAYS/매주 일요일

10:00 AM – 11:15 AM	Youth EM Service/교육부 예배
11:30 AM – 12:00 PM	Lunch/점심
12:00 PM – 12:30 PM	Drum Lesson/드럼 레슨
12:30 PM – 1:30 PM	Korean School/한글 학교 (Beginner & Advanced)
2:00 PM – 3:30 PM	Piano Lesson/피아노 레슨

(For church members & All surrounding communities)

UPCOMING EVENT/다음 행사

EASTER EGG HUNT

부활절 복음 달걀 찾기

April 20, 2025 11:30 AM

562-455-7343, 760-956-9191 vvtgchurch@gmail.com 10570 Phelan Rd., Oak Hills, CA 92344

Love · Happy
Sharing Bazzar

함께해요!

사랑 · 행복 나눔

바 자 회

2025년 4월 12일 (토)
오전 9시 ~ 오후 3시
빅토밸리 감사한인교회
(10570 Phelan Rd., Oak Hills, CA 92344)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다양하고 저렴한 식료품

♡ 식품: 김밥, 배추김치, 총각김치, 붕어빵, 꿀호떡, 직접 만든 김치만두와 고기만두, 도토리묵, 청포묵
♡ 양념: 볶은깨, 생깨, 고춧가루, 직접 짠 참기름과 들기름 소고기다시다, 기타
♡ 곡물: 팥, 녹두, 현미, 현미찹쌀, 찹쌀, 흑미, 기타
♡ 밑반찬: 오징어젓, 새우젓, 무말랭이, 고추절임, 깻잎장아찌
♡ 건어물: 간고등어, 임연수, 굴비, 미역, 다시마, 김
♡ 전: 해물전, 빈대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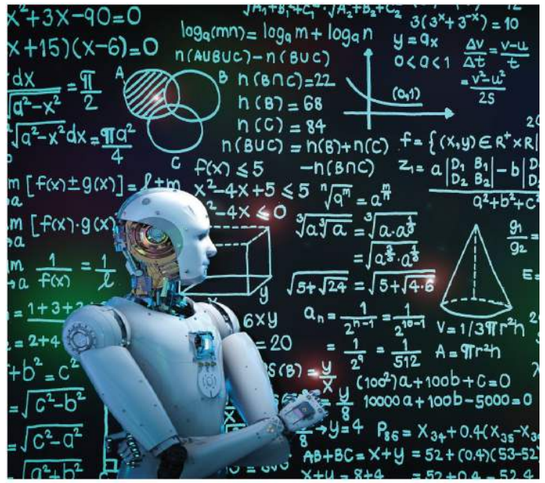
행복한 추억 새록새록 솟아나는
추억의 음식 맛보기

♡ 고소·바삭함+달콤·촉촉함... 붕어빵 시식
♡ 바다의 신선함을 통째로 담았다... 해물전 시식

사랑이 듬뿍 담겨 더 행복한
무료 점심 나눔

♡ 속이 든든, 힘이 불끈... 육개장

인공지능 시대, 누릴 것 인가 두려워할 것인가



인공지능의 시작

인공지능(AI)이라는 단어는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존 매카시에 의해 처음 등장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앨런 튜링이 던진 질문, '기계도 생각할 수 있을까?'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초기 AI는 인간의 논리적 사고를 흉내 내고, 체스와 같은 게임에서 사람과 경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발전과 침체의 반복

AI 기술은 발전과 침체를 반복해 왔다. 1950-60년대에는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곧 몇 차례의 'AI 겨울'이라고 불리는 침체기를 겪었다. 1980년대 전문가 시스템의 등장으로 잠시 활기를 찾았고, 1990년대에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발달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통계적 방법이 인기를 얻었고, 2012년 알렉스넷(AlexNet)이 이미지넷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딥러닝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AI의 주요 분야와 '알파고'의 등장

요즘 AI는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강화학습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다. 특히, 딥러닝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복잡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좋아졌다.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자연어 처리 분야는 급격히 발전했고, 2017년 알파고가 인간 바둑 챔피언을 이기면서 AI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크게 주목받게 됐다.

AI 기술을 이끄는 기업들

현재 AI 기술의 최전선에는 여러 기업들이 경쟁 중이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OpenAI의 GPT-4와 Anthropic의 Claude, 그리고 구글의 Gemini가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이미지와 영상 인식 기술에서는 NVIDIA, 구글, 메타가 주도적이며, Midjourney나 Stable Diffusion과 같은 기술은 글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혁신적인 능력을 자랑한다. 음성 인식과 합성 기술에서는 구글의 Duplex, 아마존의 Alexa, 애플의 Siri가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강화학습 분야에서는 DeepMind의 AlphaFold가 생물학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켰고, OpenAI의 DALL-E는 창의적인 콘텐츠 생성의 가능성을 넓혔다.

시니어를 위한 AI 활용법

AI 시대에 시니어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를 사용하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고, AI 번역 앱으로 외국어를 몰라도 소통이 가능해진다. 시니어들은 AI를 활용한 건강 관리 앱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쉽게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가족과의 화상통화 앱을 통해 언제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나 온라인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천도 중요하다.

시니어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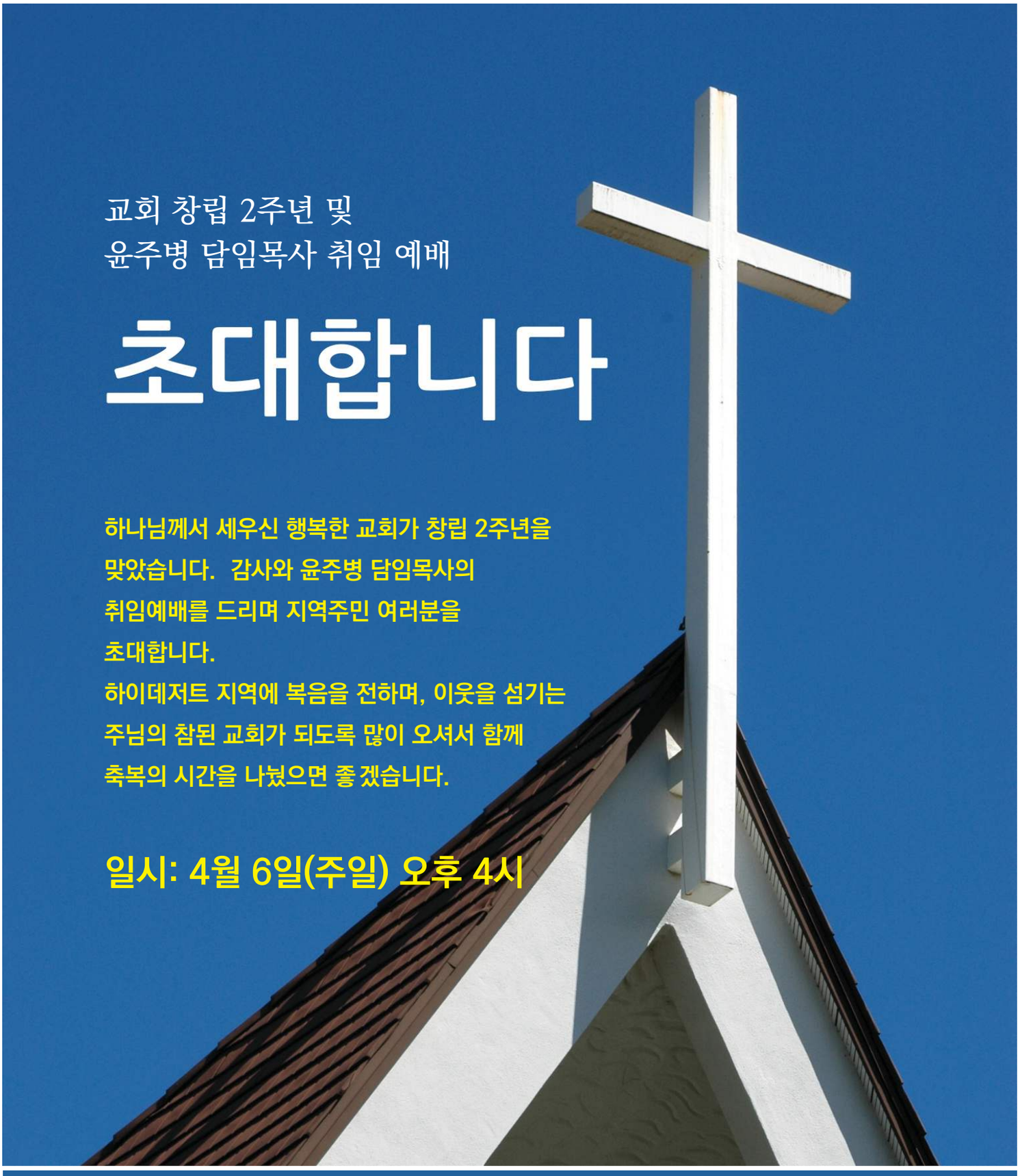
AI 기술은 시니어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 쉽게 글쓰기나 메모를 남길 수 있으며, AI 개인 비서를 이용해 일정 관리와 약 복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AI로 자동화된 번역이나 콘텐츠 제작 도구를 활용하면 시니어들도 쉽게 책, 블로그, 또는 다양한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AI를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는 시니어들의 삶을 보다 활동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한국에서 번역된 AI 베스트셀러

『슈퍼인텔리전스』(닉 보스트롬 저, 까치글방)
『AI 슈퍼파워』(리카이푸 저, 청림출판)
『딥러닝 레볼루션』(테런스 세즈노프스키 저, 프시케의 숲)
『생각하는 기계』(레이 커즈와일 저, 김영사)

앞으로의 AI 전망과 과제

AI 기술은 이제 단순히 기계적이고 딱딱한 기술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사회 곳곳에 깊이 스며들었다. 앞으로 AI는 의료, 환경 문제 해결,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술 발전 못지않게 사람과 AI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또 윤리적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회 창립 2주년 및
윤주병 담임목사 취임 예배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행복한 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와 윤주병 담임목사의
취임예배를 드리며 지역주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이데저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도록 많이 오셔서 함께
축복의 시간을 나눴으면 좋 겠습니다.

일시: 4월 6일(주일) 오후 4시

하이데저트 행복한 교회
HD Happy Church

7898 Phelan Rd. Phelan CA 92371

714-980-2038
hdhappychurch@gmail.com
www.hdhck.net



하이데저트 카워시 건설 경쟁

하이데저트 지역에 카워시 건설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는 특히 헤스페리아에 3곳이 오픈을 준비 중이다.

1)레드라인 익스프레스(Redline Express)
한인이 오너인 카워시로 헤스페리아에서 올해 첫번째로 오픈될 예정이다. **(사진)**

베어밸리 길, 발삼 애비뉴의 동쪽에 위치한다.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이어서 곧 오픈할 예정이다.

2)퀵 쾍(Quick Quack)
퀵쾍 카워시로는 팜데일로드, 베어밸리 로드에 이어 빅토밸리에서는 세번째다. 메인 스트릿과 E 스트릿 근처에 건설되고 있다. 이 카워시는 여름이나 가을 쯤 오픈할 예정이다.

3)미스터 카워시(Mister Car Wash)
이 카워시는 메인 스트릿, 레드 배런 피자와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 사이에 건설된다.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미스터 카워시는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다.

헤스페리아에는 풀 서비스 카워시를 비롯하여 주유소나 기타 미니 마트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약 20개의 세차장이 있다.

빅토빌 한인 목사회

(회원 소속 교회)

회장: 강성수목사
(562-260-8083)
총무: 백성현목사
(760-694-3735)

하이데저트 중앙교회 담임목사: 홍정택 주일예배:오전11시 13878 Apple Valley. 760-792-1987	**햇빛 재단** 마약, 알콜, 도박 등 중독자 치료와 상담 대표: 김영일목사 문의: 213-432-9791	**빅토밸리 복음교회** 담임목사: 이영근 공로목사: 강성수 주일예배: 오전 11시 9191 Deep Creek Rd. 760-265-5690	**나눔동산교회** 담임목사: 임성필 원로목사: 류창렬 주일예배: 오전 10시 4166 Nielson Rd. 714-313-8498
주의 사랑 선교센터 공동담임: 백성현 &백석영목사 주일예배: 정오 12시 11373 Oasis Rd. 760-694-3735	**열린문 기도원** 담임목사: 우정은 주일예배: 오전10시 5705 Stone Basin Rd. Phelan 760-249-5858	**새생명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송국 주일예배: 오전11시 16165 Walnut St. Hesperia 760-887-4848	**신유 기도원** 담임목사: 손 다윗 주일예배: 오전 10시30분 5280 Oil well Rd. Phelan 915-570-7244

완벽시공의 대명사 **백스 조경**









대형 중장비 보유
땅 정지 작업(클린업)
콘크리트 블럭
펜스/ 게이트
정화조 설치
조경공사 일체

라이선스(Class B #701232)
본드 있음
(714)797-9000/ (310)933-0005



대추나무 200그루 판매



필랜 기후에 적응된
팜추리 수 백그루 판매

"더운 **여름 에어컨**을 안 켤수도 없고,
추운 **겨울 히터**를 안 켤수도 없고..."

여러분의 고민을 LG 냉난방 시스템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LG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시면 에너지 사용량을 1/4에서 1/2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Bluetech
4323 Nielson Rd. Phelan, CA 92371. 문의: 213-393-2633



트럼프 제2기, 보호무역 회귀로 세계경제 '요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단순한 정치적 복귀를 넘어 세계 경제 질서에 또 한 번의 거센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 첫 임기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바탕으로 고율 관세를 앞세워 국제 무역 시스템을 흔들었던 트럼프는, 다시 한 번 대대적인 보호무역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글로벌 경제는 또다시 트럼프발 격랑의 시대에 접어든 형국이다.

관세정책의 배경, 표심과 패권

트럼프가 고율 관세를 다시 꺼내든 배경에는 복합적인 정치, 경제적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제조업 지역, 소위 '러스트 벨트(Rust Belt)' 유권자들의 표심이 핵심이다. 이들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강경한 무역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이들 지역의 지지를 발판 삼아 재선에 성공했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려는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굴기와 경제 패권 확대를 견제하려는 지정학적 목적도 있다. 단순한 무역 불균형 해소가 아니라, 미국의 기술, 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경제 안보' 전략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는 이 같은 대외 강경노선이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부담을 야기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과 전략산업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국 내 생산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되찾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 그의 계산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정치적 위험도 '미국 중심의 자립 경제'라는 슬로건 하에 감내하려는 기조가 강하다.

서민 가계에 직격탄

고율 관세는 결코 거시경제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가장 직접적이고 체감되는 충격은 일반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국산 가전제품, 가구, 의류, 장난감, 생활용품 등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의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들 제품의 가격은 10~20%가량 오르게 된다.

낮은 가격의 중국산 전기밥솥이나 청소기, 소형 TV 등을 구매해왔던 서민 가정은 자연스럽게 소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학용품, 유아용품, 저가 스마트폰처럼 생계와 밀접한 품목의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생활비 상승으로 직결된다. 관세가 적용된 제품의 유통업체는 공급업체 변경 또는 비용 전가를 통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그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 된다.

또한 관세 정책은 일자리에도 영향을 준다. 제조업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 수입업체나 유통업체의 비용 상승으로 인해 고용 축소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유통·물류·서비스 업계가 타격을 받게 되면 고용 불안은 서민층에 집중된다. 특히 서민 경제에서 민감한 요소인 개솔린린 가격이나 식료품 가격 또한 관세 여파로 연쇄 상승할 수 있다. 일부 농산물과 기초 원자재가 관세 보복 대상에 포함되면, 농민이나 트럭 운전사, 식당 자영업자 등 생계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 단순한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서민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사진=연합뉴스]

뉴욕라이프 파이낸셜 프로 조셉신 323-620-4848	중고 상업용 냉장고 판매 Paul Kim 213-709-5111
파트타임 구합니다. Victorville Laundromat 760-626-8777	거라지, 자동게이트 등 각종 전기 문제 909-878-6060
유기농 쪽파 판매 213-381-2007 아둘람	shed(120스퀘어) 판매 가격 $3000 213-503-3491
한마음 섬김의 교회 금요 찬양예배(오후 6시) 909-217-5983	쪽파 농장 직판 루선밸리 우리농원 213-219-7466

코리안밸리 무료 게시판에 게시된 광고
(koreanvalley.net/게시판)
생활교차로 페이지에 무료로 내드립니다







트레일러 판매

길이 30피트.
2012년형. $15,000
714-797-9000/ 310-933-0005



도자기 클래스 모집

예술사랑: 15551 Cajon Blvd.
San Bernardino
문의: 909-573-9929

광고 문의

명함(1/8) 사이즈
213-503-3491
(카톡 혹은 문자 메시지)

미팅 룸 대여합니다



* 미팅 인원: 30~40명
* 대여료: $50(기본 2시간)
* 커피, 티 free(Self service)
* 대형칠판, 고속 인터넷 구비
* 위치: 9522 Branding Iron Rd. Phelan
* 예약 및 문의: 213-505-3491

서랍 속에 묵혀둔 사진과 핸드폰 속 갇혀 있는 사진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패밀리 화보집" 제작

서랍 속에 묵혀둔 사진과 핸드폰 속에
갇혀 있는 수 백장의 사진이 따뜻한
감성을 지닌 화보집으로 변합니다.
사진은 많지만 추억은 흐려지셨나요?
이민 역사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십시요!
종이로 된 화보집은 오래도록 기록으로
남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들춰볼 수 있고, 기록으로
남는 화보집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세요.

〈특징〉
* 큼직한 letter Size 판형
* 2 ~ 3부 소량 주문 가능
* 제작 후 배송해 드립니다

〈대상〉
* 사진으로 엮는 개인 회고록
* 자녀들 사진 화보집
* 여행 사진
* 가족/단체 이벤트
* 교회/단체 History Book



화보집 커버(왼쪽)와 내지 샘플

HongSan Press
info@koreanvalley.net
문의: 213-503-3491(카톡 혹은 텍스트 메시지)

SILVERWOOD

Find Your Home









실버우드 그랜드 오프닝

코리안밸리에서 실버우드 그랜드 오픈 행사에 참여합니다. 오픈 행사에 함께 투어를 가시기 원하는 분은 5일(토) 오전 10시까지 코리안밸리 문화센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장소: 9522 Branding Iron Rd. Phelan
info@koreanvalley.net
문의: (213)503-3491(카톡 혹은 문자로 연락)

**부동산 에이전트가 함께 합니다.